재미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에서 웰빙 수준을 높인다

(Fun Drives High Levels of Well-being at the Best Workplaces for Millennials)

지난 몇 년간 직원의 웰빙 상태는 특별히 좋지 않았으며, 특히 청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직장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수준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훌륭한 조직 문화의 힘이 이러한 경향을 뛰어넘습니다.

The state of employee well-being hasn't been particularly rosy the past few years, and it continues to worsen, particularly among young professionals who report high levels of workplace stress and burn out.

올해의 "Fortune Best Workplaces for Millennials™ List"에 포함된 조직들은 Great Place To Work®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 건강과 웰빙의 모든 측면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Great Place To Work®은 이번 해의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회사들 로부터 거의 50만 명의 밀레니얼 대응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Fortunately, the power of great cultures overrides that trend.
Organizations on this year's Fortune Best Workplaces for Millennials™ List are bucking the norm across all measures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ccording to research from Great Place To Work®, who produced this year's list based on nearly 500,000 millennial responses from eligible companies.

미국에서 고립감이 유행 수준에 도달하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배려와 동료애가 귀중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직장들에서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연장으로 일하는 동안 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의 근로자 중 9명 중 9명(94%)은 서로를 돌봄으로써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With loneliness reaching epidemic proportions in the U.S. — and higher among young people — care and camaraderie are a premium. But younger generations at Best Workplaces™ don't feel lonelier at work compared with their older co-workers. More than nine out of 10 (94%) workers across all generations say people care about each other.

Great Place To Work의 CEO인 Michael C. Bush는 "한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면 모든 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돌봄과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이 모든 연령과 배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직원 경험의 격차는 줄어듭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직장의 힘입니다."

"If you care for one generation, all generations benefit because you're caring for people, not numbers on an Excel spreadsheet," says Michael C. Bush, CEO of Great Place To Work. "Young people want what we all want — for their work to matter, to feel excited to start their day, to feel cared for and supported. When that happens for all people of all ages and backgrounds, gaps in the employee experience shrink. That's the power of a great workplace for all."

Great Place To Work의 다양한 웰빙 측정 기준에 따르면, 거의 10명 중 9명의 밀레니얼 세대와 Gen Z 세대는 웰빙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Gen X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 동료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Across Great Place To Work's broader measures of well-being, nearly nine out of 10 millennials and Gen Zers report high well-being levels — on par with their Gen X and baby boomer colleagues.

Great Place To Work의 연구에 따르면, 웰빙의 한 측정인 심리적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우승 기업에 속한 밀레니얼 세대 중거의 10명 중 9명(86%)은 자신들의 회사가 건강하다고 말하고, 일반 직장에서는 이와 비교하여 동료의 52%만이 그러하다고 보고했습니다.

Across one measure of well-being, psychological health and safety, nearly nine out of 10 millennials (86%) at winning companies say their company is healthy compared with 52% of their peers at a typical workplace, according to Great Place To Work research.%.

모든 연령에 대해 웰빙을 촉진하는 요인은 동일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미'입니다. 직장에서 재미를 경험하는 직원들은 웰빙 수준이 높은 경우가 190%에서 220% 더 많다고 합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른 웰빙 촉진 요소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 공정한 이익 배분, 그리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문화적인 노력과 마찬가지로, 이는 비즈니스에 좋습니다. 이러한 우승 직장들은 생산성, 유지보수, 채용 분야에서 평균 회사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승 기업의 직원들은 일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능성이 거의 두 배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추천할 확률도 거의 두 배입니다.

What drives well-being for millennials is the same for all ages. The No. 1 driver: fun.
Employees who experience fun at work are 190% to 220% more likely to have high well-being levels. Other well-being drivers across all generations are pride in one's accomplishments, receiving a fair share of the profits, and the ability to take time off.
As with all culture work, it's good for business. These winning workplaces outperform average companies across productivity, retention, and recruitment. Employees at winning companies are almost twice as likely to give extra to get the job done and recommend their company to others.

모든 세대에게 있어 재미라는 요소가 웰빙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었다.

모든 세대는 재미있는 환경에서 일한다고 보고할 경우 웰빙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고의 직장에서밀레니얼 세대가경험하는 상위 5가지요소
(The top 5 things millennials experience at the Best Workplaces)

우승 기업에 속한 밀레니얼 세대 중 10명 중 9명이 자신들의 직장이 평균적인 회사의 동료들과 비교하여 훌륭하다고 말하고, 평균적인 회사의 밀레니얼 세대 중 6명 중 10명만이 동일한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Nine out of 10 millennials at winning companies say their workplace is great compared to their peers at average companies, where just six out of 10 say the same.

이러한 직장들이 밀레니얼 세대 직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과 그것이 비즈니스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ere's a closer look at how these workplaces are creating positive experiences for their millennial workforce — and how that affects business success.

1. 환영받는 느낌 (Feeling welcomed)

자신의 회사에 입사할 때 환영받는다고 보고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40% 더 높습니다.

Millennials who report feeling welcomed when joining their company are 40% more likely to feel people care about each other.

대기업 중 61위에 올랐던 Tanium은 새직원들이 환영받고 포함되며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입사자는 입사 친구와 멘토와 함께 일하게 되며, 회사 전체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한 직원 참여 활동, 그리고 매달 두 번씩 열리는 "창업자 만나기" 질의응답 세션에 참여할 것을 권장받습니다.

Tanium, No. 61 among large companies, creates several programs to help new staffers feel welcomed, included, and supported. New hires are paired with an onboarding buddy and mentor, and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employee engagement activities, including employee-wide virtual chats to meet co-workers across the company and twice-monthly “Meet the Founder” Q&A sessions.

2. 의미 있는 일 (Meaningful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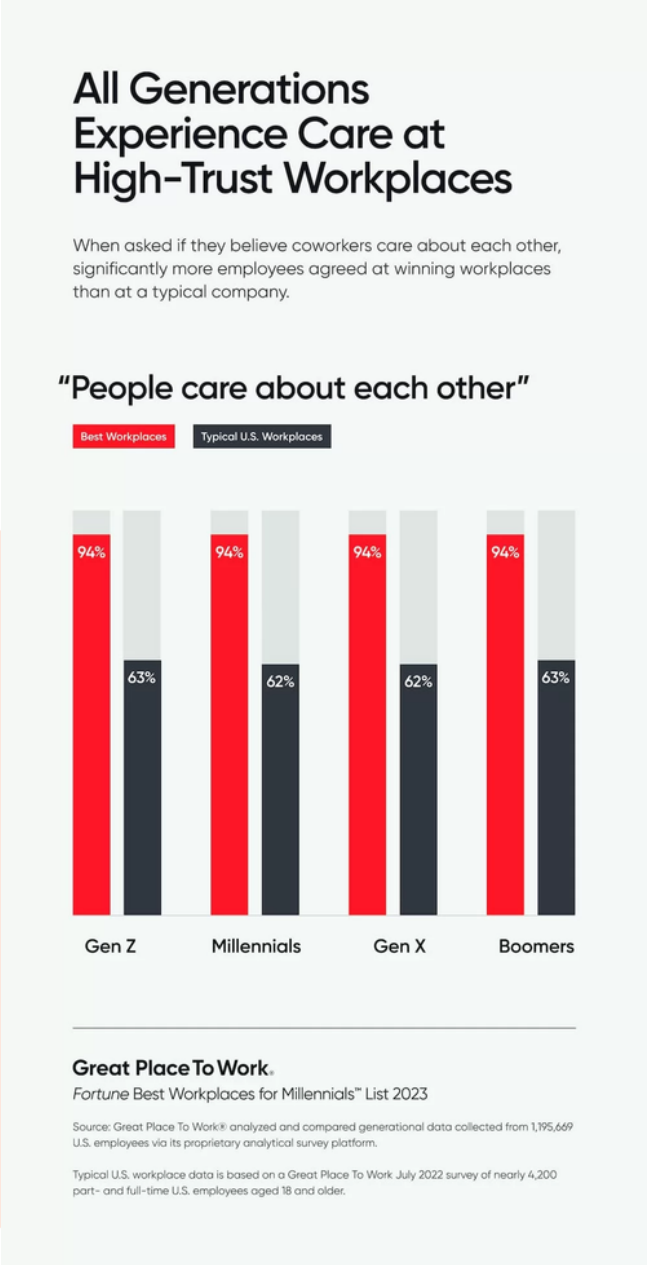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들의 일에서 목적감을 느끼는 것 -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직장이 아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기업보다 우승 기업에서 52%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이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회사에 머무르려는 의향이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 거의 세 배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Making sure millennials feel a sense of purpose in their work – that what they do is “more than just a job” – is 52% better at winning workplaces than at average workplaces. And the more they feel their work matters, the more likely they’ll stay at their company. In this case, nearly three times more likely.

3. 관심을 받는 느낌 (Feeling cared about)

밀레니얼 세대가 관심을 받을 때, 일하는 동안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67% 더 높아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중요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우승 기업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91%가 "추가적인 노력의 문화"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5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여분의 노력은 올해 Fortune 100 Best Companies를 나머지 회사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When millennials experience care, they’re 67% more likely to give extra at work. High levels of discretionary effort are always welcome, but are particularly important during lean economic times. At winning companies, 91% of millennials say they work in a culture of extra effort compared with 51% at a typical company. Discretionary effort is also what sets the Fortune 100 Best Companies apart from the rest this year.



모든 세대는 높은 신뢰를 가진 직장에서 돌봄을 경험합니다

직원들에게 동료들이 서로를 돌봄으로 여기는지 물었을 때, 우승 기업에서는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 훨씬 더많은 직원들이 동의했습니다.

4. 공정한 급여와 승진 (Fair pay and promotions)

사람들이 공정하게 급여를 받고 승진을 받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가 일하는 동안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최고의 직장들이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데서 68% 더우수하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 밀레니얼 세대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능성이 15%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직장이 사람들에게 공정한 급여를 보장할 때, 밀레니얼 세대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능성이 35% 더높아집니다.

Ensuring that people are paid and promoted fairly drives millennials to give extra at their jobs. Millennials report Best Workplaces are 68% better at promoting people than at typical companies, and when that's true, millennials are 15% more likely to give extra. And when workplaces ensure people are paid fairly, millennials are 35% more likely to give extra.

5. 직위에 관계없이 완전한 팀 구성원으로 대우받는 것
(Treated as a full team member regardless of position)

우승 기업에서 93%의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이 이러한 직장적 평등을 경험하며, 이를 경험한 직원들은 머무를 가능성이 67% 더 높아집니다.

Ninety three percent of millennial workers at winning companies experience this type of workplace equity, and when they do, these workers are 67% more likely to stay.

회사가 자부심을 가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나요?

회사가 Great Place To Work 인증을 받고 최고의 직장 목록에 지원하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To find out how your company can become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and apply to our Best Workplaces lists, start here.